



왼쪽 공사현장을 점검 중인 김경호 구청장. 오른쪽 중곡빗물펌프장을 방문한 김 구청장.

## 공사장·하천등 재난 위험요소 제로화... 주민 생활공간 누비며 불편 청취도

김경호 구청장, 총 7곳 방문 태풍·집중호우 대비 태세 점검  
제방길 스마트쉼터·음수대 등 주민 휴식공간 위생관리 확인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청장이 직접 주요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행정에 나섰다. 김경호 구청장은 지난 27~28일 이틀간 지역내 주요 공사현장과 수방시설, 하천, 등산로, 주민 생활권 등 총 7곳을 방문해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폈다. 이번 점검은 장마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공사장과 수방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민 생활권 곳곳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은 담당부서와 함께 즉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신속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뒀다.

● **대형 신축공사장, 중곡빗물펌프장 점검**  
첫날에는 대형 신축공사장, 중곡빗물펌프장, 중앙천체육공원 및 제방길, 중곡역 일대 골목을 차례로 방문했다. 공사장에서는 터파기 구간의 토사 유

실과 지반 침하 가능성, 배수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했으며, 여름철 건설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중곡빗물펌프장에서는 시설 운영 준비상황과 장비 관리 상태를 살폈다. 또한 중앙천체육공원에서는 집중호우 이후 복구 현황과 체육시설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제방길에 설치된 스마트쉼터와 음수대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해 더위를 피해 휴식공간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의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했다. 중곡역 근처 능동로53길 일대 이면도로에서는 청소상태와 보안등 현황을 살피며 주민들이 골목이 크게 바뀌었다고 느끼도록 골목을 환하게 밝히고 넓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뒷물받이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및 폭염 저감 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

● **광장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현장 및 아차산 사방댐 등 점검**



중앙천체육공원에서 안전상태를 점검 중인 김 구청장.

둘째 날에는 광장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현장과 아차산 사방댐 및 동행숲길, 홍원봉 보루 유구보호시설 건립 현장을 찾았다. 우리 공사장의 음벽과 토사 관리 상태를 비롯해 사방댐 기능 유지 여부, 등산로 안전시설,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며 태풍과 집

중호우에 대비한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김경호 구청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태풍과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난은 무엇보다 사전 점검과 예방이 중요하다. 공사장과 수방시설은 물론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공간까지 작은 위험요인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공사장과 수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발효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2026년 폭염 대책기간인

오는 9월30일까지 실시간 상황관리와 단계를 운영한다. 구는 스마트쉼터와 무더위쉼터 운영, 그늘막과 물탱크, 살수차 운영 등 폭염 대응 대책도 함께 추진하며 여름철 복합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경준 기자 yyj@sinilbo.co.kr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제10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시민의 삶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